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21 >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영화 리뷰

SWOT으로 보는 '엽기적인 그녀2'

견우가 돌아왔다. 배우 차태현도 그대로다. 12일 개봉하는 '엽기적인 그녀2'(감독 조근식·제작 신씨네)는 2001년 차태현과 전지현이 주연했던 1편을 잇는 속편이다. 영화는 견우(차태현)가 중심이다. 운명인줄 알았던 1편의 그녀(전지현)가 돌연 비구니가 돼 사라진 뒤 이야기. 중국으로 떠났던 어린 시절 첫사랑 그녀(빅토리아)와 만난 견우가 속전속결 결혼에 이르면서 겪는 '수난사'는 1편을 능가한다. '엽기적인 그녀' 1편은 중국과 일본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때문에 이번 2편은 아시아 관객까지 아우른다. 4월 중국 개봉 당시 7500여 개 스크린에서 공개됐고, 태국과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 9개국에도 판매됐다.



STRENGTH(강점)···'엽기적인 '신혼'

1편이 '엽기적인 연애'를 그렸다면 2편은 그보다 수위가 높은 '신혼'에 주목한다. 철부지 대학생이던 견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나이 들어도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 법. '엽기적인 그녀'에게 사사건건 '당하는' 견우의 처지는 여전하고, '웃픈'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그의 매력도 변함이 없다. 전지현을 잇는 여주인공 빅토리아는 영화에 서툰 실재로도 중국인이다. 빅토리아의 참여로 2편의 배경은 중국으로까지 넓어졌다. 한중 신혼부부가 겪는 황당한 상황이 연속해 펼쳐진다. 코믹 장치도 1편보다 많다.

OPPORTUNITY(기회)···'차태현은 있네'

차태현은 '호감형 배우'로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다. '엽기적인 그녀' 1편이 차태현을 스타덤에 올려놓았다면 이번 2편은 변하지 않은 그의 저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다. 차태현 역시 "오랜만에 견우를 만나고 견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반가웠다"고 했다. 전지현 대신 빅토리아와 만난 차태현은 11살의 나이차를 가늠할 수 없는 동갑의 신혼부부 호흡을 과시한다. 동시에 작장 동료로 출연한 배성우와 코미디 호흡도 빼놓기 어렵다. 관객을 웃기는 데 있어 우위를 다투기 어려운 두 배우는 '엽기적인 그녀2'에서 처음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개봉을 앞둔 또 다른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로 인연을 이어갔다.

WEAKNESS(약점)···'전지현이 없네'

'엽기적인 그녀'는 1편의 성공 이후 수차례 후속편 제작을 기획해왔다. 규모와 소재, 제작 방식 등에 변화를 거듭하며 완성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관객의 선택을 결정지을 변수는 1편의 주인공 전지현의 부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엽기적인 그녀'를 상징하는 아이콘의 빈 자리를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 더욱이 제작진은 이야기의 연속성을 위해 1편의 그녀가 '머리카락 자르고 절로 들어간' 상황으로 2편을 시작한다. 대중이 뜨겁게 사랑했던 '엽기적인 그녀'가 비구니가 됐다. 충격적이다.

THREAT(위협)···'틈새' 얼마나 넓을까

흥행에 성공한 1편이 가진 유명세는 그 자체로 프리미엄이지만 반대로 넘어야 할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판단은 관객의 몫이다. 일단 희소성은 크다. 같은 시기 개봉하는 유일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 가법적 보고 즐기는 데이트무비로 제격이다. 이미 8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본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나 무겁고도 묵직한 분위기의 '곡성'보다 관객이 접근하기 쉬운 영화다. 하지만 그 틈새 공략에 실패한다면 막강한 경쟁작들에 밀릴 수 있다.

■ 새 영화

●곡성 | 11일 개봉 | 감독 나홍진 | 주연 광도원 황정민 천우희 | 상영시간 156분 | 15세 관람가

나홍진 감독이 '미끼'를 던졌다. 관객이 이를 물지, 자못 궁금하다. 전라남도 외딴 지역 곡성에 낮은 일본인(쿠니무라 준)이 나타난 이후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의문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경찰은 야생버섯 중독으로 결론 내리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이 일본인 때문이라고 수군댄다. 경찰 중구(광도원)는 살인사건 목격자 무명(천우희)을 만나면서 마을의 소문을 사실로 확신하고 자신의 딸마저 광기에 휩싸이자 무당 일광(황정민)에 도움을 청한다. 영화는 '악'을 향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야기 분명하지만 그에만 '현혹'되면 결국 감독의 '뉘시질'에 낚이고 만다. 과연 악마는 존재하는가, 그 악마는 우리 곁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홍진 감독은 그만의 방식으로 질문과 답을 내놓는다. 또 하나, 15세 관람가 등급에도 함정이 있다. 잔혹한 '묘사'나 성적인 '표현'은 없지만 감독은 시각효과를 제외한 청각 등 다른 감각을 총동원해 사건을 비춘다.



이해리 기자 gol1024@donga.com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Biz gallery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갤럭시S7 산다

아시아나항공은 삼성전자-SK텔레콤과 함께 항공 마일리지로 갤럭시S7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사진)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서초동 삼성디지털라이프에서 삼성전자, SK텔레콤과 함께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갤럭시 S7의 부팅/종료 화면에 아시아나항공 로고를 삽입하고 아시아나항공 테마를 탑재한 '갤럭시 S7-아시아나폰'을 5000대를 SK텔레콤을 통해 공급한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5만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부 추가 금액을 부담하면 '갤럭시 S7-아시아나폰'을 구매할 수 있으며, 무선충전패드, 32기가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 등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아쿠아플라넷 일산, 생일파티 패키지

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은 어린이 생일 파티 패키지 '파티 인 아쿠아리움'(사진)을 출시했다. 아이의 생일 파티를 아쿠아리움에서 진행하여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패키지로 기본 구성은 아쿠아리움 자유 관람, 파티룸 대여, 아쿠아리스트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시크릿 투어, 스텝북으로 이루어졌다. 기본 패키지에 메인수조 현수막 이벤트가 포함된 서프라이즈 패키지도 있다. 파티룸은 최대 20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풍선과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다. 단, 아이들 간식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10세 이하 자녀만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웨스틴조선 바 서클, 빙수 출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로비 라운지 & 바 서클은 9일부터 여름 시즌 메뉴 코코넛 빙수와 티라미수 빙수(사진)를 출시한다. 일찍 더워진 날씨를 고려해 지난해 보다 출시가 한 달 정도 앞당겼다. 코코넛 빙수는 코코넛 쉼에 담겨 나오는 독특한 비주얼이 특징이고, 티라미수 빙수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시그니처 디저트인 티라미수를 모티브로 한 디저트 빙수로 유키농 우유 얼음에 마스카포네 치즈 무스를 올리고 코코아 파우더를 뿌렸다. '한미탐스' 임상결과 비뇨기학회 발표 한미약품의 전립선비대증 1차 치료제 한미탐스 0.4mg의 임상결과가 전세계 2만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비뇨기과학회 AUA에서 한양대

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이승욱 교수가 8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했다. 이승욱 교수는 "국내에서도 증가하면서 0.4mg 단일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한국에서도 탐스 0.4mg 단일제가 허가를 받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미탐스 0.4mg은 3월 출시된 탐스 0.4mg 성분 전립선비대증(BPH) 치료제다.

내일투어, 프랑여행 퀴즈 이벤트

개별자유여행 전문 내일투어는 프랑스 기차여행 '탑 프렌치 시티 퀴즈 이벤트'(사진)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탑 프렌치 시티' 추천 여정을 확인하고 간단한 퀴즈를 풀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1등 액션캠(1명)을 비롯해 2등 마카롱 세트(5명), 3등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론(10명), 4등 내

일투어 프랑스로 가출하기 엄복(20명) 등을 제공한다. '탑 프렌치 시티'는 프랑스로 24개 대도시를 대표하는 도시 연합으로 기차로 연결되는 프랑스로 도시로 이어진 총 7개의 기차 여정으로 구성했다.

인터파크투어, 가이드 품질관리제 실시

인터파크투어가 '가이드 3단계 품질관리제'(사진) 전 단계를 실시한다. 인터파크투어는 '가이드 3단계 품질관리제'를 도입해, 올 초부터 1단계로 얼굴 사진, 실명, 경력, 전문영역 등 현지투어 가이드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 전담가이드 실명제'를 실시했다. 이어 2단계 '고객 설문조사(LMS)'에 이어 여행 종료 후에 고객의 평가를 통해 우수 가이드에게는 포상을, 문제 발생 가이드에게는 강령 제재를 실시하는 3단계까지 도입했다.

